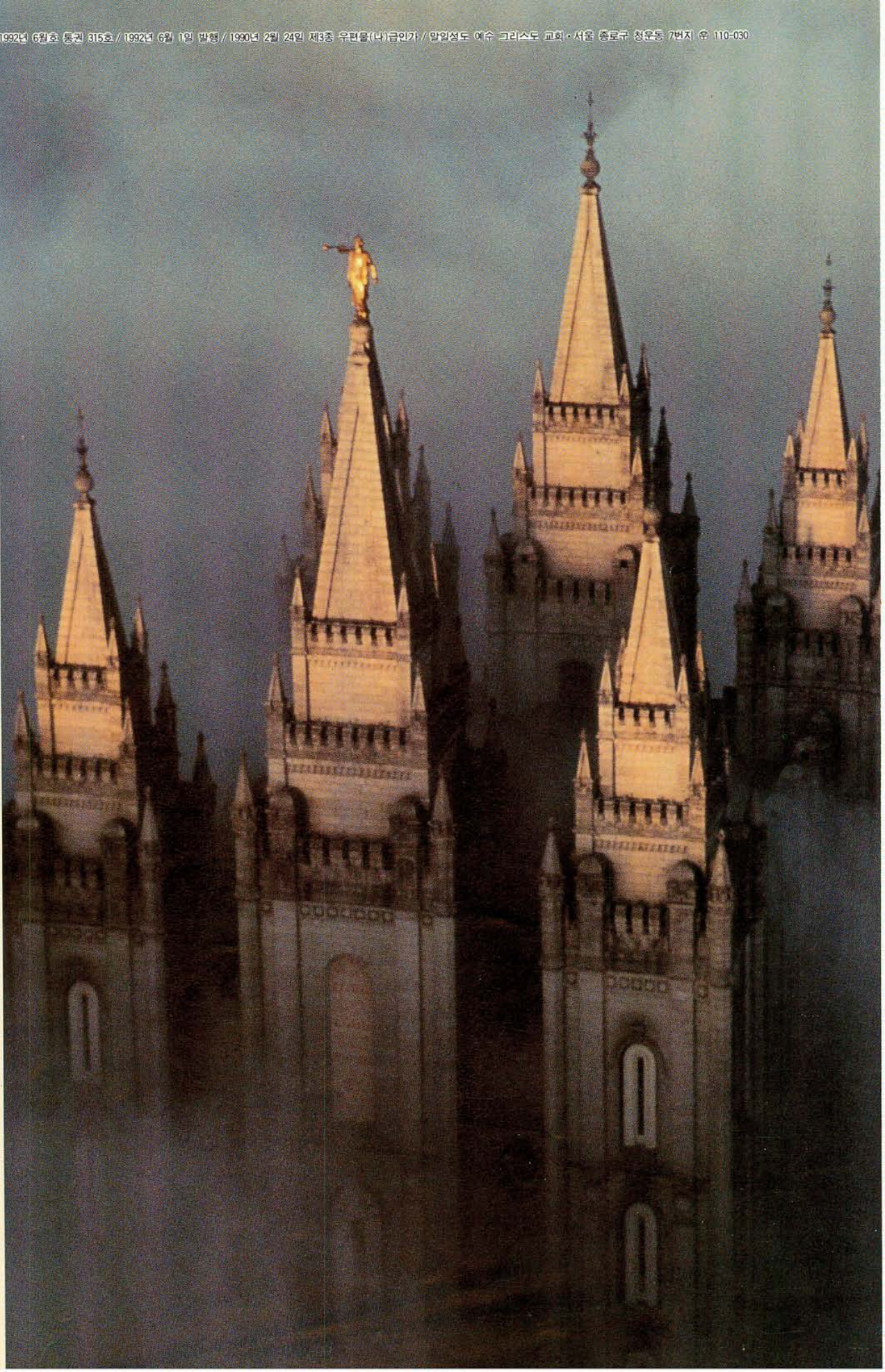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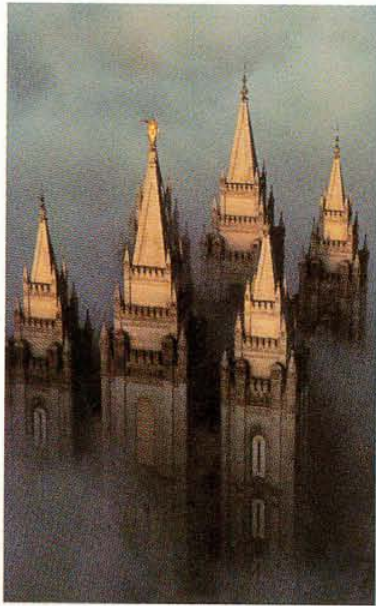


1992
6
성도의 빛

말인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표지 :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에 참석하여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을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십시오”, 1쪽 참조)
 표지 사진 : 솔트레이크 성전
 엘든 린시트
 뒷표지 사진 : 솔트레이크 성전
 로이스 베어

어린이란 표지 :

솔트레이크 성전과 템플 스퀘어에 있는 두 건물을 위에서 보고 그린 그림.
 왼쪽 상단에 태버나클의 둥근 지붕이 보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물은 북 방문자 센터로서 이곳에는 복음 계획에 관한 그림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 : 샤우나 무니 가와사끼

일 반

성전으로 오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1
대관장단 메시지 : 왜 성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2
성약과 축복을 부여 받음	9
거룩한 성전 보이드 케이 패커	14
영혼의 안식 일레인 스타	24
죽은 자를 위한 구원	25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친구 페기 힐 리스캠프	32
말일의 성전들	34
어느 날 성전에서 메리 노엘 리그비	44
폭풍을 잠잠케 함 마빈 케이 가드너	46

정 기 특 별 기 사

방문 교육 메시지 청녀를 환영함 : 열려진 문	48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말일성도의 길 한인상 정로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6

어 린 이 란

성전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50
몰몬경 이야기 :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선교사가 됨	52
노래 : 나 성전 보고 싶어	53
함께 나누는 시간 : 요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음	54
깨어진 등 엘마 제이 에이츠	56
심심풀이	61
탐험 : 모로나이 상을 만드는 법 사논 더블류 오슬러	62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15권, 제29권, 제6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2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의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2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86 320
Printed in Korea 6/92

성전으로 오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하 나님 아버지의 집은 질서의 집입니다. 만일 우리가 충실하다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주는 신권의 반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현대에 계시해 주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신권에 따르는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교성 86 : 8~11; 83 : 33~34 참조)

성전에 참석하여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을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 엘리야의 영을 받아 배우자와 자녀들과 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마음이 조상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며 조상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돌이켜지게 될 것입니다.

•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 받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또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성 84 : 19~20 참조)

•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큰 봉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교성 138 : 34)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성전과 관련된 축복이며 자주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와 손자들에게 성전 참여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가르치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부름과 택함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가 계시한 축복들을 받도록 해 주십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제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간증드리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에서 선조들의 축복을 구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현대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왜 성전을 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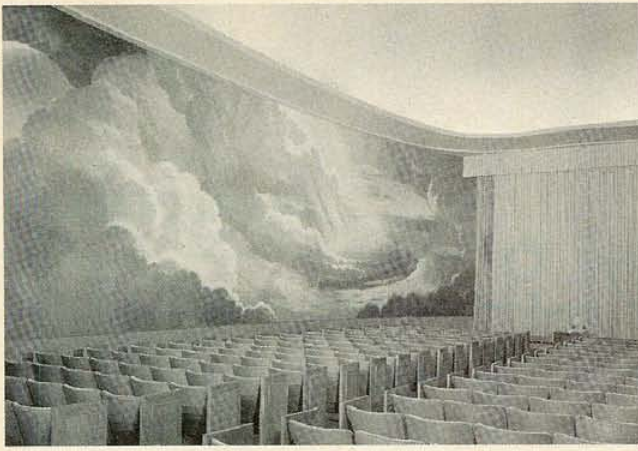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인생에 대한 질문에 영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몇몇 장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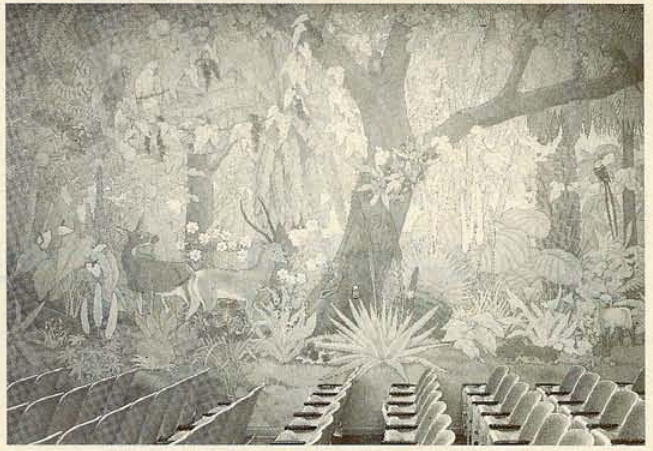
조

용히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를 만드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게 할까? 아내와 자녀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될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은 이러한 질문과 기타 영원에 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거룩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헌납되었고, 세상적인 모든 것과는 멀리 떨어져 영원한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가 가르쳐지고 의식이 집행되며,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성스러운 유산과 영원한 존재로서 그가 지니는 잠재력을 깨닫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로스엔젤레스 성전(캘리포니아주)의 창조실



아이다호 폴스 성전(아이다호주) 에덴 동산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일반 교회 집회소와는 다른 이 건물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다른 어느 종교 집회소와도 상이합니다. 그렇게 다른 까닭은 건물이 유달리 크다는지 건축학상 미적인 멋을 살렸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정규 예배 장소와는 구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관습으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보았으며, 더욱 성스러운 장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최초로 사용한 지성소가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성전을 지어 특별한 의식을 행하였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식을 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시켜 모든 시설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헌납되면 주님의 집이 되어,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며 합당한 위치에 있는 교회의 회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비밀스러운 일이 행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러한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피조물인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 일들로써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과 지상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가족에 관한 것을 다루며, 결혼 성약과 가족 관계의 성스럽고 영원한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풀이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효력이 미치게 되는 데, 이는 교리가 아름답고 인상적인 어조로 되풀이 설명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 거룩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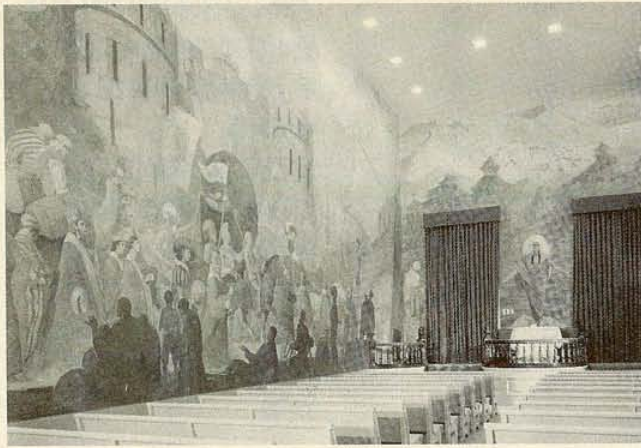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라고 묻자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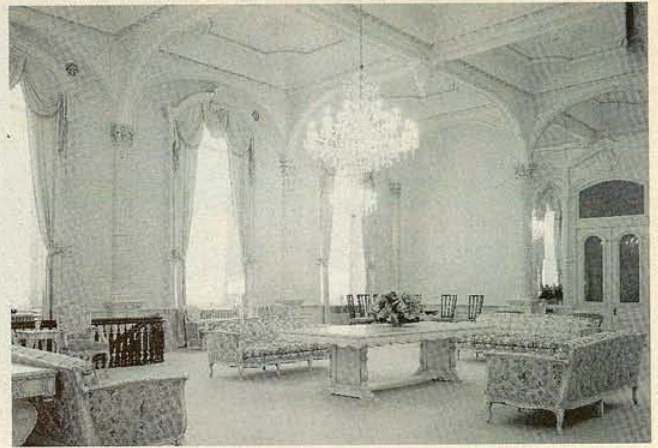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28, 30~31)

오늘날 성전에서는 인간이 창조주와 이웃에 대하여 갖는 의무의 기본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고상한 원리를 더욱 확실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필멸의 존재이지만 이에 반해 인간의



맨타이 성전(유타주) 현세실



맨타이 성전(유타주) 해의 왕국실

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또한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이해시켜 줄 뿐 아니라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다른 많은 자녀에게 보다 큰 우애를 나타내 보이게 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상 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서는 계시로 밝혀진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상 생활은 영원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경전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예레미야 1:5)

우리는 지상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며, 육신을 탄생시킨 그분들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도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협조자가 되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가정을 영원히 유지함

성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업은 가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일이 성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 것 같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 동안 맛볼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만족스러운 관계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답고 뜻깊은 가족의 유대는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축복을 받는 부부는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는 국법의 권세 뿐만 아니라 땅에서 맺어진 관계를 하늘에서도 맺어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관계나 자녀들과 갖는 유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게 됩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편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 가운데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부모 가운데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다시 그 자녀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값진 삶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를 갈구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나타내



브렌트 피터슨 사진

왼쪽 :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는 선교사들.

오른쪽 : 솔트레이크 성전의 인봉실. 스테인드 글래스 유리창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부활한 예언자 모로나이가 물몬경 금판을 주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전당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짐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해 얻는 축복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된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사실상 성전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전세계에 광범위한 복음 사업을 펴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교성 77:8)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성스러운 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볼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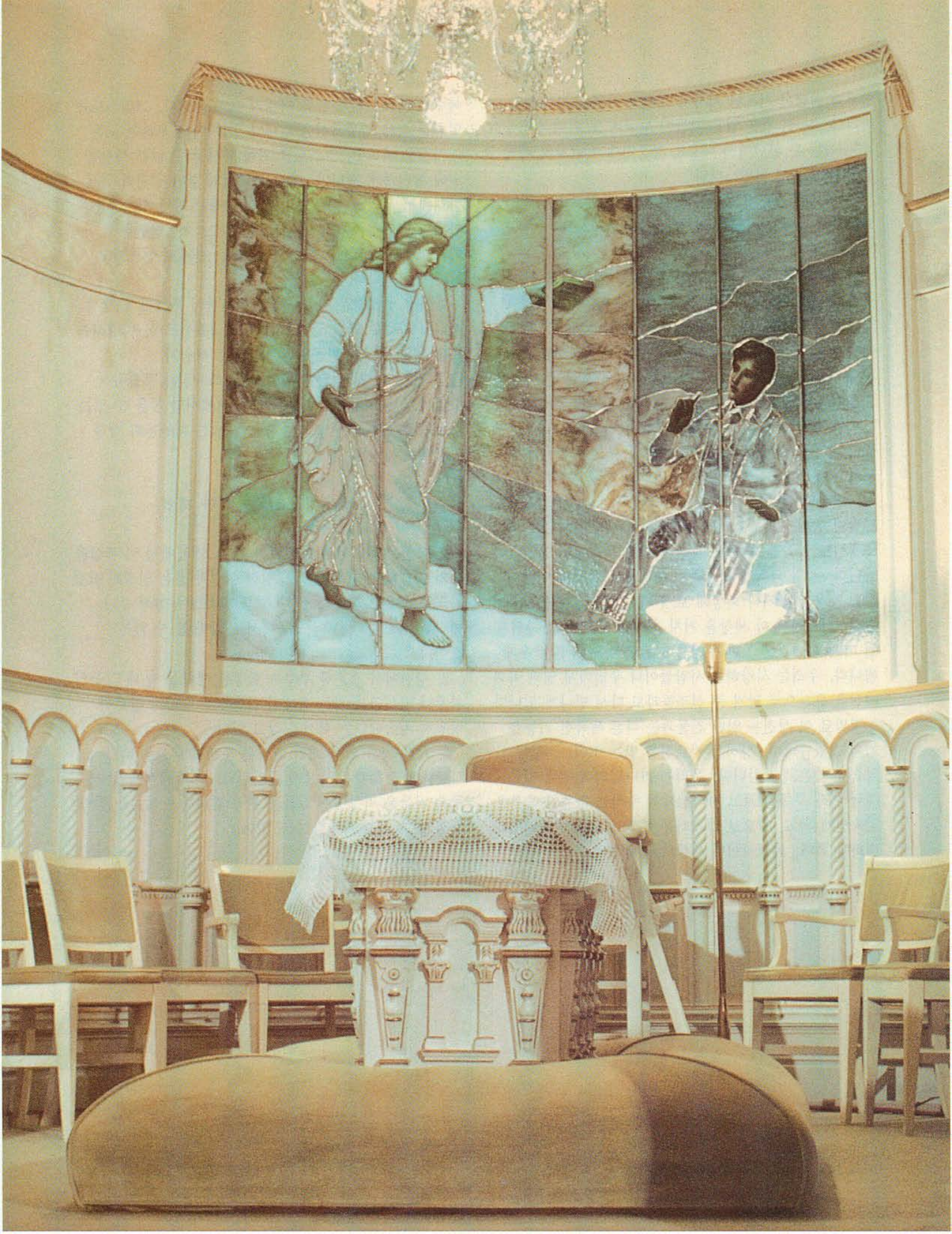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하는 침례, 결혼, 가족 관계를 결봉해 주는 인봉 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강제가 없으나

똑같은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 사업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보이는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확인하고 찾아 보는 광범위한 가족 역사 탐구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족 역사 탐구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가족 역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훌륭한 탐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 역사 시설을 갖춘 기록 보관소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선조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회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가족 역사 연구가로부터 큰 찬사를 받아 왔으며, 이 기록 보관소는 각국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교회 회원이 그들의 선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선조들에게도 맛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과 영생을 누리하고자 원한다면 나의 돌아가신 조부나 증조부나 혹은 다른 선조들도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거룩한 집, 성약의 장소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한 가운데 수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기록된 계시자 요한의 시현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요한계시록 7:13~15)

이 성스러운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의식에 참여할 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합당성을 인정하는 지역 신권 역원의 추천서를 받아 성전에 오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오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복장이 깨끗해야 하고, 세상적인 것을 제쳐 두고 하나님의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성전에 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그 자체로써 큰 보상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잠시 세상을 잊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장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값진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인생의 값진 것을 배우거나 회상해 보게 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전세에서 이 세상을 거쳐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귀게 될 미래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여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영과 육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 준 선조들과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성전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성약과 약속을 맺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게 되고, 참으로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독생자이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위해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참된 신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죽음으로도 해칠 수 없는 관계로 인봉되고 함께 맺어집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건물은 말일성도들이 무참히 쫓겨 다니고 박해를 받던 암흑 시대에도 세워졌으며, 번성하는 시대 뿐만 아니라 빈곤하던 시대에도 세워져 운영되었습니다. 성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예언자와 거룩한 계시와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믿는 회원들의 강한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전세에서 이 세상을 거쳐 미래의 세계를 향한 영원한 여정과 같은 인생의 값진 진리를 배우고 회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이러한 기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2. 성전에서 결혼한 부부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관계나 자녀들과 갖는 유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3.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영의 세계에 있는 죽은 자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하는 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성약과 축복을 부여 받음

주 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거룩한 성전 의식의 성약과 축복을 이 지상에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 후일 대관장단에서 봉사하셨던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성전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인류가 다시 갖게 된 시기인 1840년대에 교회 회원들이 지녔던 지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엔다우먼트의 열쇠를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예언자 요셉이 처음으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열쇠에 대해 이해하려고 심히 원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 주신 것을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 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전율이 스치고 지나갔으며, 이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이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복음 진리: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의 설교 및 저서 인용문, 2권, 제럴드 엘 뉴퀴스트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4년, 제1권 228쪽)
성전 엔다우먼트의 본질과 그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을 포괄적으로 일게 된다. 우리는 전세와 현세, 그리고 내세에 대해 배우게 된다. 위: 창조실, 솔트레이크 성전

의미는 무엇인가? 말일성도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 의식에 관해서 상세하게 토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이나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여러 대관장들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영감어린 유익한 설명을 해주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으며 저명한 학자였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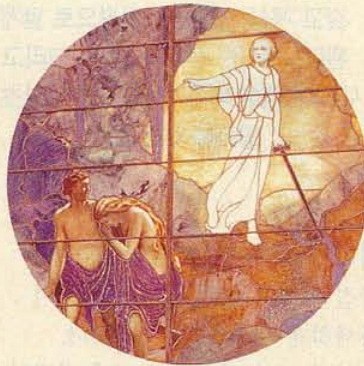
“현대 성전에서 집행되는 성전 엔다우먼트에는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중요성과 순서에 관한 가르침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시기인 현재의 경륜의 시대의 중요성에 관한 가르침도 포함된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 첫 조상의 상태, 창조의 시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들의 불순종과 범법 후 복된 거처로부터의 추방, 노동하고 땀을 흘려 살도록 운명이 결정되었을 때 세상에 처하게 된 외롭고 두려운 상태, 아담의 범법이 속죄받을 수 있게 마련된 구속의 계획, 대배도의 기간, 고대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다시 누리게 한 복음의 회복,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개인의 순결과 현세에서 의를 이루기 위한 헌신, 복음의 필수 요건에 대한 엄격한 순종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을 때 개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덕과 순결의 법을 엄격히 지키고, 자비롭고 유덕하며 관용을 베풀고 순결하기로 결심하며, 재능과 재물을 바쳐 진리를 전파하고 인류를 향상시키기로 하며, 진리의 대업을



위해 헌신을 계속하며, 이 지상을 만인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힘써 공헌하기로 성약을 맺는다. 모든 성약을 맺고 책임을 받아들이면, 조건을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진다.

“모든 성전 의식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성결케 하는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엔다우먼트 의식이란 도덕에 관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바쳐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는 성약을 맺게 하는 의식이다. 주님의 집에서 받는 축복은 어떤 특권층의 사람에게만



솔트레이크 성전 : 위, 에덴 동산실; 아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를 묘사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 우측, 현세실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한다면 성전에 가서 이러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주님의 집, 72~73쪽)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으며, 대학 총장이자 과학자였던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성전에서 교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엔다우먼트는 다음의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째, 아득한 태초로부터 미래의 영광스러운 운명에 이르는 때까지 인간의 영원한 여정에 관한 몇 가지의 가르침이다. 둘째, 끝없는 영원한 여행이 진보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설정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진보의 법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때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업적을 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진다.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논리적이며, 영적인 것이다.”(합리적인 신학, 제7판,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65년, 125~126쪽)

제2대 대관장이셨던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엔다우먼트의 목적은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난 후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에게 성신권에 관한 표적과 증거가 되는 중요한 말을 하고 그의 곁을 지나 아버지의 면전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며, 지상 생활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승영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솔트레이크 성전 : 위, 달의 왕국실 ;
우측, 해의 왕국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41년, 416쪽)

또한 제10대 대관장이셨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성전에 가게 되면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세상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는 성약을 맺는다. 그 성약을 명심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엔다우먼트를 통해 성전에 가지 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보호의 방편을 갖게 될 수 있다.

“나는 부친께서 시련이 닥칠 때나 유혹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집에서 맺은 약속을 생각함으로써 보호를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러한 의식들은 부분적으로 바로 그 보호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의식을 존중하면 그것은 우리를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 주고 이후에 우리를 승영시켜 준다. 나는 그 보호책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다. 이는 나도 그것을 깨닫고 있으며 수천의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유타 제보 및 역사지, 1930년 7월호, 103쪽)

부여한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대단히 값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주어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엔다우먼트의 축복은 인생에서 영원한 지주가 되어 힘을 주며, 무한한 영감과 동기를 주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



거룩한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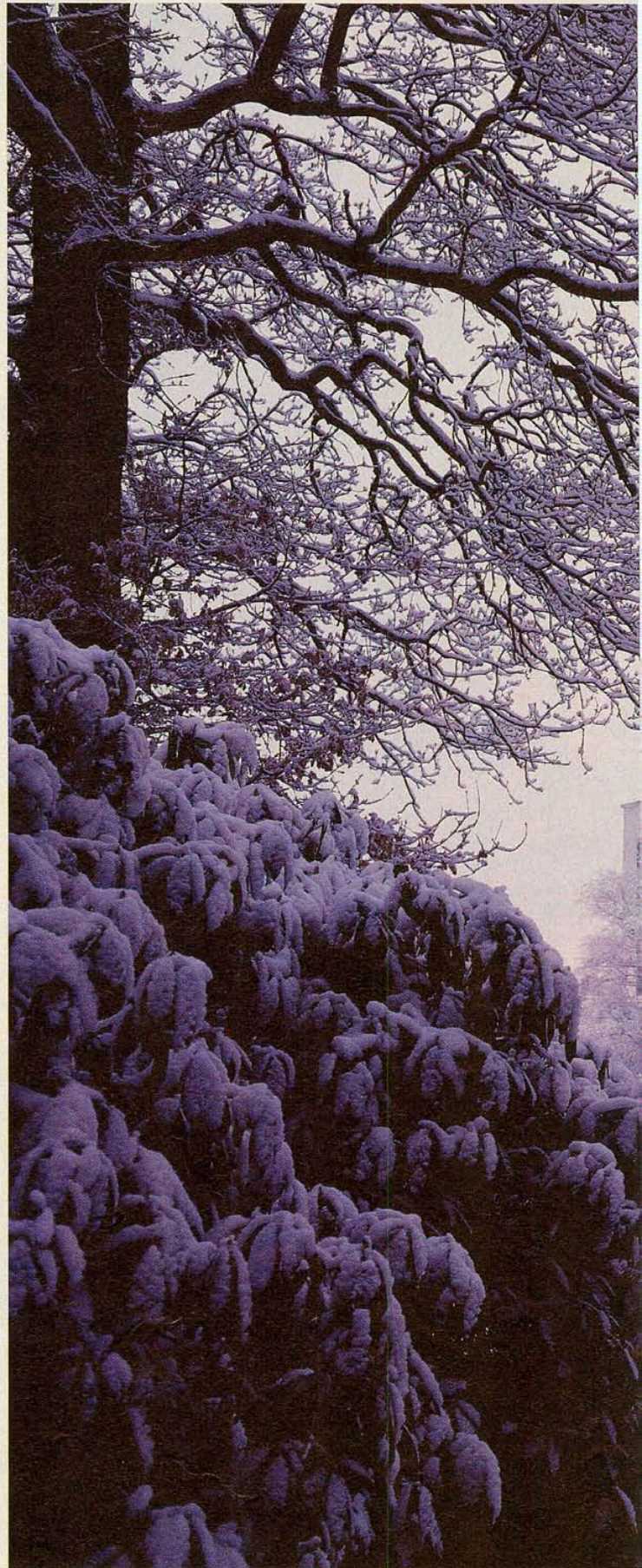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성전에 가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에서도 이 건물의 심오한 영적인 목적이 은연중 나타나 있으나, 그러한 영적인 목적은 그 건물의 내부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문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성전이나 헌납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곧 주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합당한 교회 회원은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높은 구원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통해 씻음과 기름 부음과 가르침과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 대리 의식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산 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의식도 똑같이 행해집니다.

“주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영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오른쪽: 겨울의 런던 성전







죽은 자를 위한 성스러운 침례
의식은 주님의 집에서
행해진다. 왼쪽: 엘버타
성전의 침례실(캐나다)

이 일은 성스러운 것임

성전을 주의깊게 읽어 보면 주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그에 대한 전제 요건이 되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전 의식이 바로 그에 속합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서는 성전 의식에 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성전 의식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을 몇몇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제한하자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도록 온 힘을 다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다녀온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살아 있는 자들과 이 지상에 살았던 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성전이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회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우며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의식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만으로는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의식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앙, 회개, 침례, 확인, 주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는 사람에게 합당한 성숙함과 고결성 등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합당함

일단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신성함과 성전 축복의 가치에 대해 다소 이해하게 되면 이런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께서 세운 높은 표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에는 합당한 교회 역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합당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감독과 지부장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해 질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점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점건은 주님의 성임된 종과 함께 자신의 인생 과정을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생애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도록 감독이 도와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 곧 이스라엘의 보통 관사와의 상담을 통해 주님의 승인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함을 선언받게 되거나 합당하게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전 추천을 위한 점건은 감독과 교회 회원 사이에 은밀히 행해져야 합니다. 이 점건에서 회원은 개인적인 행위와 합당성과 교회와 교회 역원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피점건자는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완전한 심일조를 바치고 있으며,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며, 배도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독은 피점건자와 가진 점건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대개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개인의 합당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말일의 성전에서는 합당한
교회 회원들이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함께 인봉될 수
있다. 오른쪽 : 대만
타이페이 성전에서 새로
결혼한 부부

만일 신청인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일상 생활에서 시정 또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성전 추천서를 받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이 그와 같은 접견을 한 후,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이 같은 방법으로 접견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받은 가르침

성전에 처음 가는 것이든, 여러 번 가 보았던 성전에 가기 전에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교사이신 주님은 대체로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전은 위대한 학교이며, 배움의 집입니다. 성전에서는 심오한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셨던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은 명문 대학 총장이었으며 세상에 잘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대해 커다란 경외심을 갖고 있었으며 언젠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의식은 교회 지도자들이 늘 가르친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이며, 난해한 일들을 잘 밝혀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배운 가르침을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적용시키는 일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무리가 없는 일입니다. 엔다우먼트의 철학적인 완전성은 성전 의식의 진실성에 대한 한 가지 훌륭한 논지입니다. 더욱이 복음 계획에 대한 이 완전한 개요와 설명은 성전 예배로 복음의 전체 골격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되게 합니다.”(유타 계보 및 역사지, 1921년 4월호, 58쪽)

만일 성전에 가서 그 가르침이 상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야를 더욱 넓히게 되고, 보다 숭고한 느낌을 지니게 되며,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어 합당한 영의 상태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르쳐지는 원리는 참으로 훌륭하며 영감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밤에 환히 불이 켜진 성전을 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환히 밝혀져 있는 우뚝 솟은 주님의 집은 점점 영적인 암흑으로 빠져 들어가는 세상에 햇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영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평상복을 벗고 흰 성전복으로 갈아 입습니다. 옷을 갈아 입는 것은 탈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탈의실에는 각 개인마다 하나씩 옷장이 주어집니다. 성전에서는 정숙이라는 개념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옷을 옷장에 둘 때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혼란도 벗어둔 옷과 함께 그곳에 남겨 둡니다. 이 탈의실에서 흰옷으로 갈아 입고 나오면 모두가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봉의 권세

여러분들 중에 성전 결혼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밖에서 결혼 인봉 의식의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되지만, 인봉실이 아름답고 분위기가 조용하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에 의해 거룩하게 된





모든 성전의 인봉실은
 “아름답고 분위기가
 조용하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에 의해
 거룩하게 된 곳”이다.
 왼쪽: 일본 동경 성전의
 인봉실

곳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남녀가 인봉 의식을 받기 위하여 제단으로 가기 전에 의식 집행자는 젊은 남녀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하고 또 젊은 남녀는 그것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이때에 젊은 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결혼일입니다. 두 분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은 의식을 위한 성소로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여기서 진행되는 일에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주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두 분은 세상에 태어나, 각자 영이 거할 수 있는 육신의 장막을 준비하신 부모에 의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침례받았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인 침례는 정결과 사망과 부활의 상징이며 새 생명으로 나오는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회개와 죄 사유함이 포함됩니다. 성찬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대로 생활한다면 계속해서 죄 사유함을 받게 됩니다.

“신랑은 신권을 받았습니다. 신랑은 먼저 아론 신권을 받고 그에 속한 직분인 집사, 교사, 제사 직분을 모두 거쳐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신랑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대신권인 이 신권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반차를 따른 신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엘마서 13:18; 힐라만서 8:18; 교성 107:2~4 참조)으로 불리웁니다. 형제님은 그 신권의 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장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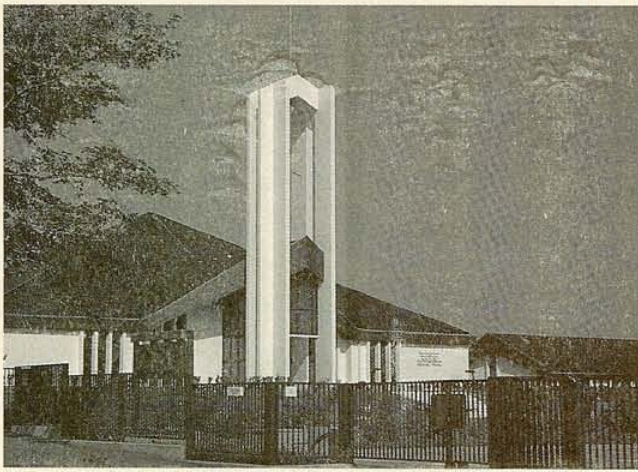
“두 분은 각자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승영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두 분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남편과 아내로서 인봉되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와 준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자유스럽게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행할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자녀를 세상으로 데리고 와, 지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양육하여 언젠가는 그들도 두 분과 같이 이 성스러운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두 분은 자의로 이곳에 왔으며 합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혼 성약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책임이며 무한한 축복이 따르는 일입니다.”

성전 사업의 역사와 교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인봉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에 있어서 인봉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일가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봉의 권세는 하나님으로 부터 인간에게 위임되는 영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인봉의 권세를 지닌 사람은 이 지상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인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최고의 신뢰와 권능이 부여된 직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심오한 영적인 일에 관련되는 가르침, 특히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교훈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쇠라는 단어를 상징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신권의 열쇠는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 가족을 구속하고 승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봉의 권세에 대한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질서 정연하게 이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집니다.”
 왼쪽 : 독일 프라이버그 성전

인간에게 주시는 권세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인봉이라는 말과 열쇠라는 말과 신권이라는 말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봉의 권세의 열쇠는 영원한 신권의 열쇠와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태복음 16 : 13, 16~19).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봉하는 권세 곧 땅에서 매거나 인봉하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권세가 있는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쇠는 교회의 대관장 곧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인봉의 권세가 지금 이 교회에 있습니다. 권능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 있어서나 지상에서 이와 같은 인봉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은 상당히 소수에 속했습니다. 어느 성전이나 인봉의 권세를 지닌 신권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누구라도

예언자이며 선견자이며 계시자이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결속시키는 인봉의 권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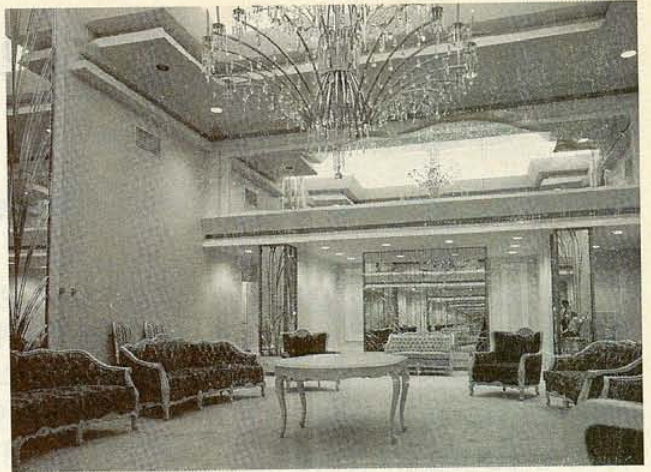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은 지상에서 매고 하늘에서 영원히 인봉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신 대리자를 두셨다. (마태복음 16 : 19; 18 : 18; 힐라맨서 10 : 3~10; 교성 132 : 46~49).

“이러한 권세에 의해 인봉되지 않은 모든 약속은 인간이 죽을 때 끝나게 됩니다. 침례에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인봉의 권세가 없다면 우리를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결혼 성약이 이러한 권능에 의해 인봉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를 해의 왕국내의 가장 높은 곳인 승영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은 인봉의 권세로 인해 지속적인 힘과 효력을 얻게 된다. 이 권세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수행된 의식이 포함되며 이 권세는 지상의 자녀들을 앞서간 조상들에게 인봉하여 승영된 자들 가운데 영원히 존속하게 될 영원한 축복사의 고리를 이루게 된다.”(브르스 알 맥쿱키, *몰몬 교리*, 제2판,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6년, 683쪽)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 가족을 구속하고 승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식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봉의 권세에 대한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질서 정연하게 이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집니다. 이러한 열쇠 곧 지상에서 인봉하고 결봉하면 하늘에서도

“교회 회원들은 고통스러운
때나 큰 결정을 앞에 두고
마음이 무거울 때 흔히
성전에 갑니다. 성전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받아들여 주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오른쪽: 멕시코시티 성전의
해의 왕국실



결봉되는 열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는 침례를 줄 수 있고 축복하며 엔다우먼트를 베풀고 인봉하며 또한 이로 인해 주님께서도 우리의 성약을 귀중하게 받아들여실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종종 “‘그러한 모든 의식을 거치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됩니다. 충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집은 왕국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인 승영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의 왕국의 율법과 완전한 율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교회 정사, 6:184)

적대자가 없지 않음

성전은 교회의 영적인 힘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신성하고 영감적인 일에 참여하고자 할 때 적대자는 우리 교회 전체와 또한 우리 각자에게 대항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성전 사업은 말일성도와 교회 전체에 매우 큰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것처럼 큰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간 성전 정초식에서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놓여진 모든 초석과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신권을 위해 계시하신 질서에 따라 세워진 모든 성전은 지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줄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성스러움을 증가시키며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위해

하늘을 움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면전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불러내립니다.(밀레이얼 스타, 1877년 11월 12일, 743쪽)

교회 회원들은 고통스러운 때나 큰 결정을 앞에 두고 마음이 무거울 때 흔히 성전에 갑니다. 성전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받아들여 주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봉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즉시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로 인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거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주위를 신만하게 하는 먼지가 가리았고 안개와 아지랑이가 걷히게 되어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수행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성전 사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감

성전 사업과 계보 탐구보다 더 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정화시켜 주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를 한 개인으로서 또한 한 백성으로서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오십시오. 와서 축복을 받으려 하십시오. 이 일은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

영혼의 안식

일레인 스타

언니와 나는 미국을 휩쓸었던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에서도 확실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안락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을 훌륭하게 부양하셨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먹을 음식을 항상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으며, 옷을 사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시장에도 가셨고 또한 연로하신 외할머니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나는 학교에서 공황에 대해 공부할 때서야 비로소 이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와 나는 어머니 곁에서 정서적으로 궁핍함을

느꼈다.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서 온정과 인정받는 것, 건설적인 비평, 도덕적인 훈련,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등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여러 번 토론하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무관심하고 비판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교회로 들어온 후, 나는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다른 사람들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어머니의 죽음조차도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지는 못했다. 그 죽음은 단지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이 이 필멸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침례하기 위해 혼자 성전으로 차를 몰고 갔다. 차를 몰면서 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자 뜨거운 눈물이 두 눈을 적셨으며, 슬픔으로 인해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다.

내가 느낀 슬픔과 마음의 상처는 성전으로 가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침례실에 들어가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물속에서 일어섰을 때, 아픈 곳을 낮게 하는 듯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비참하던 마음과 무언가를 갈구하던 허전한 느낌이 씻은듯 사라졌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한 어머니를 보았다. 성신이 나에게 임하여 어머니가 이 필멸의 생애 동안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그간 내가 모르고 있었던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더이상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내 자신과 이제는 온전해지셔서 지나간 필멸의 생애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교훈을 배우고 계신 나의 어머니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신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 이 지상에서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었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



죽은 자를 위한 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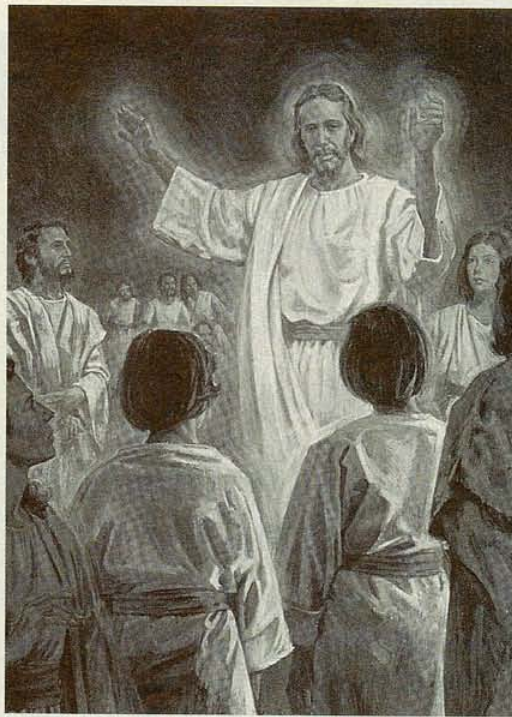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은 구약 및 신약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기록했다. (요한1서 4:8)

주님에 의해 계시되어 필멸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지 못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만든 위대한 의식보다 구세주의 사랑을 더 잘 증거하는 것은 없다.

가족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식의 중요성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친척들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강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성전에서 수행되는 의식을 통해 이러한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다.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계획은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에서도 설명되었다.



로버트 티 바레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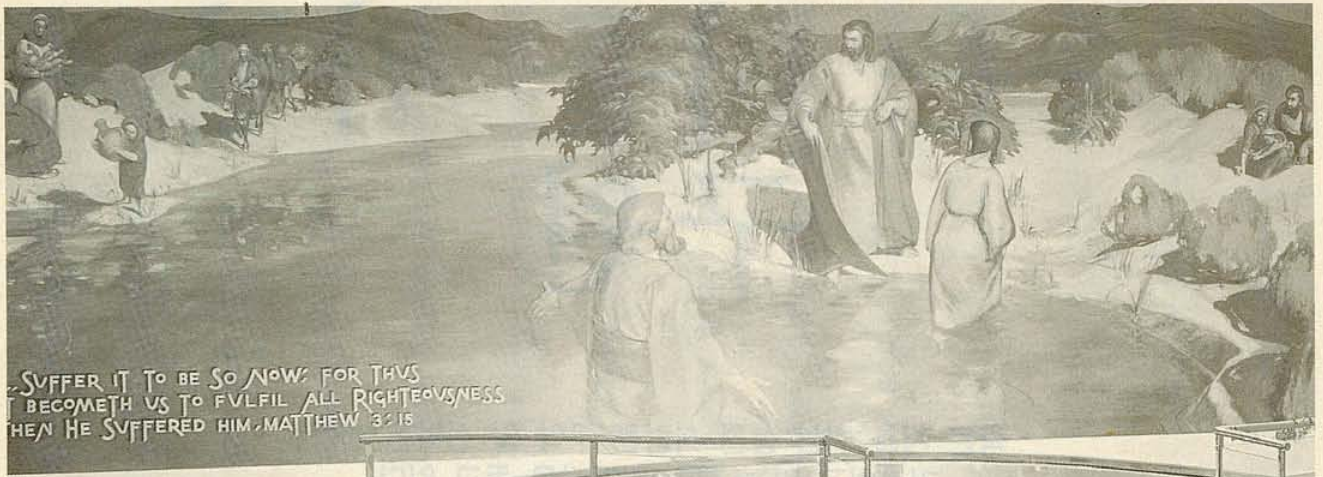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영의 세계를 방문하시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셨다. (교성 138 : 19; 베드로전서 3 : 19 참조)

대리 의식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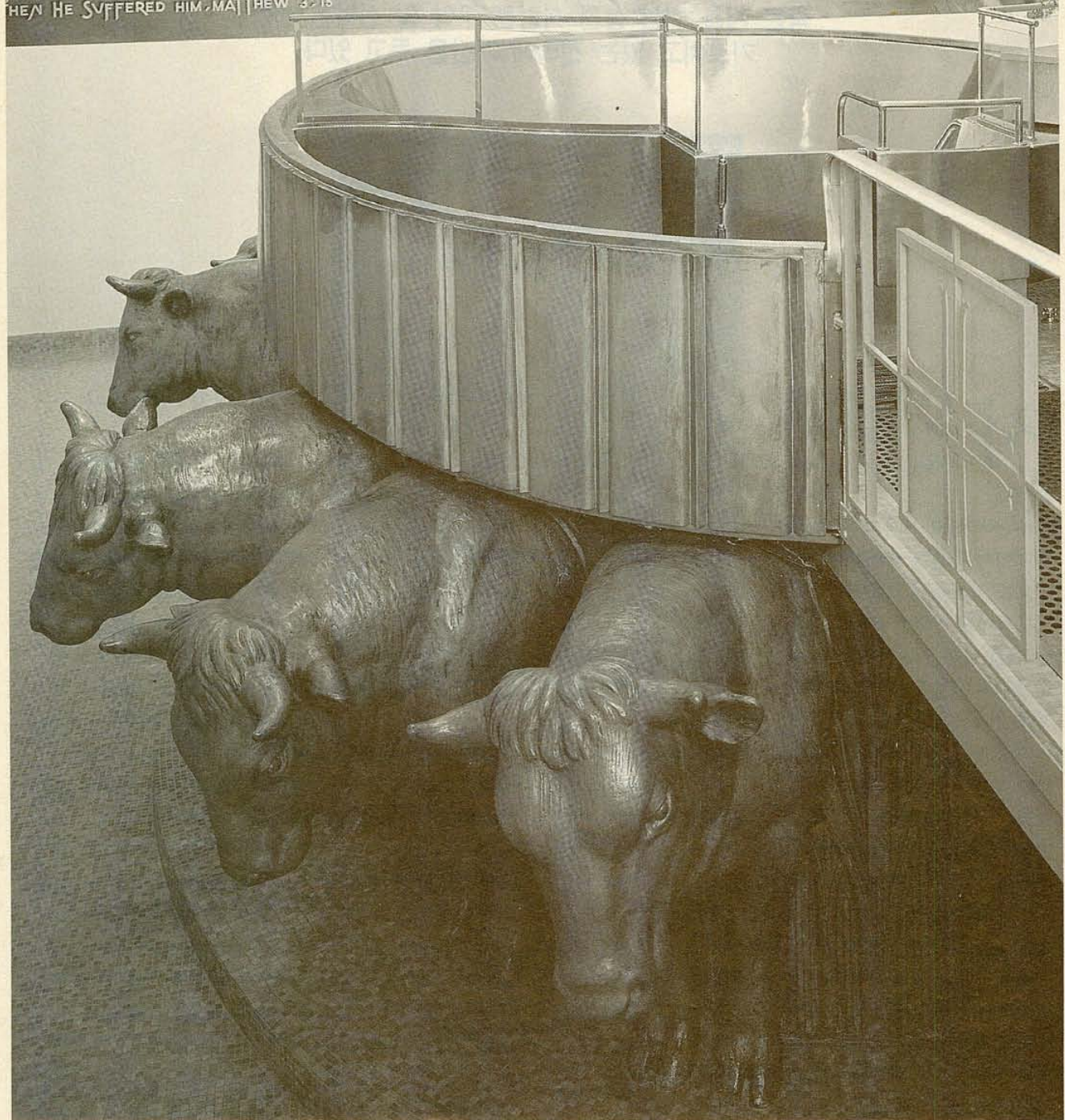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하여 행하는 대리 의식 봉사의 원리는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이 원리를 사용해 오셨다. 예를 들어 모세의 경륜의 시대에는 염소나 희생 제물이 사람의 죄를 속죄시키기 위한 대리물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희생 제물들은 인류를 위해 계획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주님의 대속은 가장 위대한 대리 제물인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디모데전서 2 : 6)라고 기록하였다. 이보다 약 750년에서 8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구속주의 희생을 미리보고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 : 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한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SUFFER IT TO BE SO NOW; FOR THUS
BECOMETH US TO FULFIL ALL RIGHTEOUSNESS
WHEN HE SUFFERED HIM. MATTHEW 3:15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및 기타 대리 성전 의식을 통하여
이생에서 그러한 의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성전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 왼쪽 : 침례반, 뉴질랜드 성전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려야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속전으로 자신을 주신 것이다.

영의 세계

주님의 구원의 계획의 근간이 되는 또하나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영들이 거하고 있는 곳, 또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기능이 살아있을 때처럼 명확한
곳으로 간다는 개념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누가복음
20 : 38)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요 5 : 25)라고 예언한대로 부활하시기 전에
친히 영의 세계를 방문하셨다.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성역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루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겪으시고 영의 세계를 방문하시었으며 사망을
이기시어 다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한 후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아마 주님을 만지고 싶었겠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복음 20 : 17)라고 명하셨다.

만일 구세주께서 그때까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육신이 무덤에 놓여 있던 사흘간 어디에 계셨을까?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의 기록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과 육신이 분리된 다른 영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곳에 가서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던
것이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베드로전서 3 : 19)라고 말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베드로전서 3 : 20)이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베드로전서 4 : 6)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 “주 여호와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이사야 61 : 1)라고
기록함으로써 죽은 이들에 대한 구세주의 성역에 대해
예언하였다.

옥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들이 자유롭게 되어 발전하고 복음의
축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메시지가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과 육신이 분리된 후
영으로 있었던 사흘간 영의 세계에서 전파하신 메시지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그러한 성역을 베풀도록
임명한 교사들이 영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다. (교성 138편 참조)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이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죽은 사람도
구속의 기쁜 메시지를 듣고, 신앙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요한복음 3 : 5), 예수께서도 몸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마태복음 3 : 15) 침례를 받으셨으며, 또한
사도들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누가복음 16 : 16)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다.

그렇다면 침례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의식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대리 행위를 통해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 이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는 침례 의식을 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배역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의 실재에

대해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 이 의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로 알려진 이 의식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라고 기록했다.

아마도 부활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어디에서 바울이 부활이 실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로 사용한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한 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이 가르침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극적인 박해를 겪고, 그리스의 철학이 만연된 세상에서 더 큰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의해 변질된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게 되면서 잃어버리거나 변질된 가르침 및 의식의 하나이다.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일에 이 지상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을 때,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회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에 대해 교성 128편 참조)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회복된 진리와 함께 그분이 지닌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야만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수행되는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또한 매여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필멸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신권의 권세를 주었으며, 따라서 주님에게서 그 권세를 위임받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침례와 구원에 필수적인 다른 의식들을 집행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

이와 똑같은 신권의 열쇠가 말일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다. 주님은 예언자에게 이 때는 권세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필멸의 세계를 떠난 후에 존재하게 될 상황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다.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이니... 약속의 성령으로써 맺어지고 계약되고 결봉되지 아니하거나...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아무런 효험이나 효력이나 능력이 없으리라. 나는 말일에 나의 종 요셉을 임명하여 이 권능을 지니도록 하였나니... 이상의 목적으로 맺어지지 아니한 일체의 계약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을 맺느니라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교성 132:7~8)

주님께서서는 지상에서 의식을 인봉하고 이것을 하늘에서 매는 신권의 권세와 함께 모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넓혀 주셨다. 산 자를 위해 수행되는 의식과 똑같은 것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침례 뿐만 아니라 엔다우먼트 및 영원한 결혼 성약과 축복을 이생에서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선택의 자유

그러나 이 지상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나 아니냐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집행되는 의식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집행되는 의식들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회개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만일 그런 의식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영적인 속박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들의 선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유 의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상속받는 것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에 기본이 되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권유받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자유 의지에 따라 진행된다.

엘리아가 돌아옴

교회 회원들은 조상들의 성명을 탐구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성전 의식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상들에게로 돌리고 있다. (말라기 4 : 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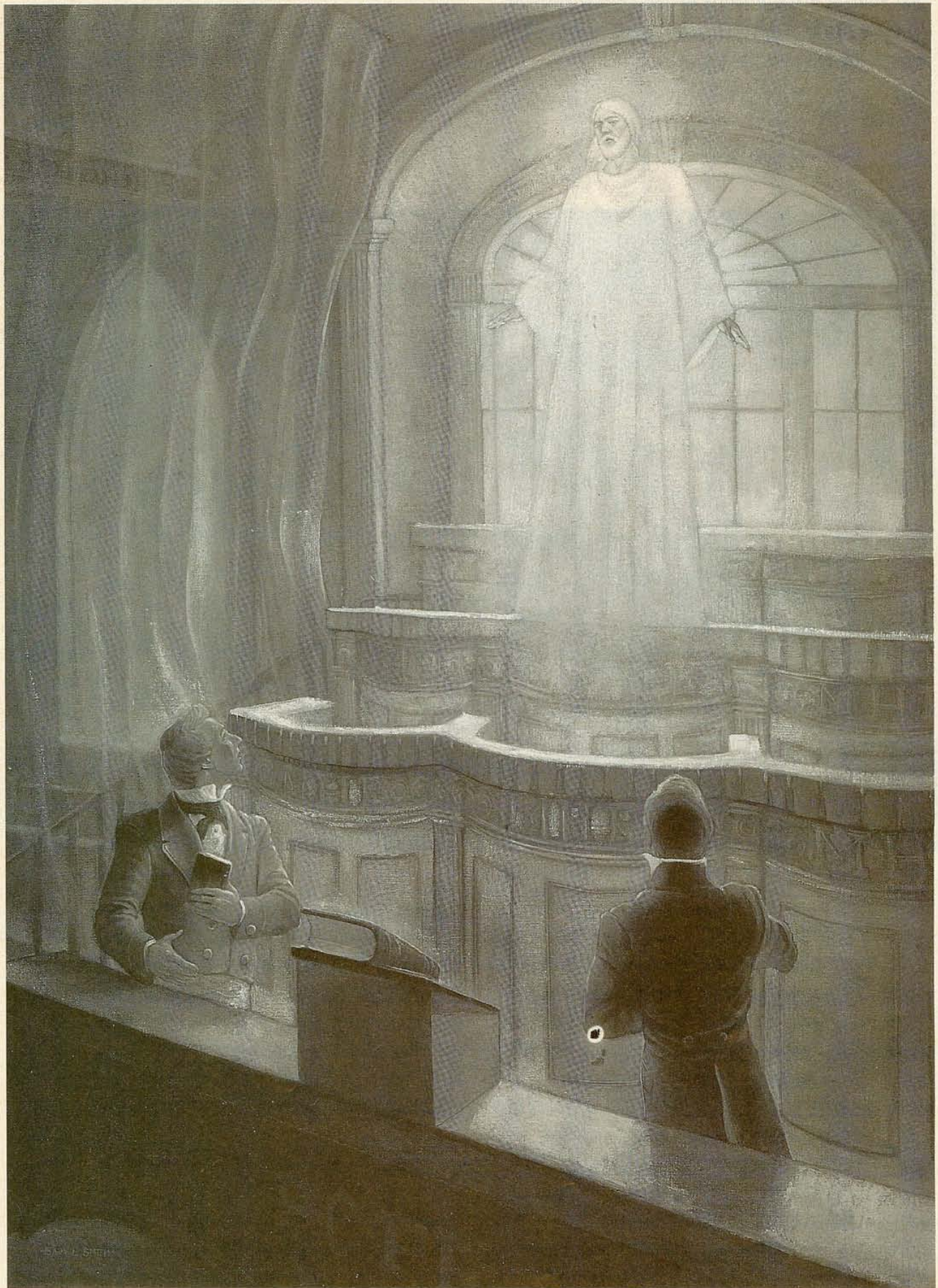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이러한 진리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말일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던 때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가르쳐진 첫번째 원리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요셉을 방문한 지 삼 년이 지난 1823년 9월 21일 천사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여 구약전서에 있는 말라기의 예언 곧 “자녀들의 마음”(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우리의 조상들)에게로 돌아서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가르쳤다. (말라기 4 : 6 참조) 모로나이는 주님께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어 주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권능과 지식을 나타내어 보일 것이라는 말라기의 예언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 주었다.

고대와 현대에 모두 예언되었듯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언자 엘리야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신성하게 증거하는 바이다. 1836년 4월 3일 예언자 엘리야는 새로 헌납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이들에게 죽은 자의 구원에 필요한 다른 모든 의식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침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여기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교성 110 : 16)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

1836년의 그 날 이후로 교회는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 복음의 의식들을 집행할 수 있는 성전을 전세계 도처에 지어왔다. 교회는 또한 계보 도서관과 전세계에서 이용이



카롤린드 성전에서 요세 스미스와 율리버 카우트리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기러 스미스 그림

1836년에 엘리야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봉의 권세와 열쇠를 회복해 주셨다. (말라기 4 : 5~6; 교성 110 : 13~16 참조)

가능한 가족 역사 탐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다.

현재 매일 수천의 말일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참석하여 기록에 들어있는 성명과 실재 인물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추적하여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대신하여 의식들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죽은 분들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위한 사업이 집행되어서 자신들이 “매어 있는 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 이러한 의식들이 집행될 때 이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시현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1918년에 말일의 예언자에게 주어졌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그해 10월 3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영의 세계를 방문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 18~20절과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읽고 이를 깊이 상고할 때에 받은 시현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경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던지라 나의 이해의 눈이 열렸으며,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나니, “그곳에는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그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받고 회개의 조건하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풀려 나는 인간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셨노라...”

“나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영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친히 가지지 않았음을 알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는 외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나니,

“이와 같이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었거나 예언자들을 배척하며 범법하고 죽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

“이러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를 버리는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대리 침례,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배웠으며,

“그들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원리도 배웠느니라...”

“나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회개하고 죽은 자의 영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따름으로써 구속받을 것이며,”(교성 138 : 11~12, 18~19, 29~30, 32~34, 57~58)

사랑의 봉사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참으로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성취되고 있음을 성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는 것은 이 말일에 주님의 길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자 축복인 것이다. 성전이라는 주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게는 지극히 소중하고 성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친구

페기 힐 리스캠프

그 리하여—결국 우리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계획, 재정에 대한 오랜 동안의 고민, 기도 그리고 아이들을 두고 떠나면서 흘린 눈물, 해야 할 일에 대한 목록 또 목록들, 계보 탐구를 위해 스페인에 간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스페인에 있는 어느 교회의 한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열성적인 계보 학자인 남편 조지는 기쁨에 들떠 저에게 양피지로 된 두껍고 무거운 책들을 보여 주었는데 그 책에는 1500년 대 이후로부터 성직자가 기록한 결혼, 침례, 사망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책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열성이 저를 고무시키기를 바라면서 그 책들을 조사하는 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그토록 쉬운 일이 저에게는 조금도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건강은 까맣게 잊은 채 그 책을 탐구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이 편치 못했습니다. 두 시간 쯤 지나니 나무 의자에 앉아 있기가 견딜 수 없이 불편했으며 백열 전구로 인하여 오는 그림자 때문에 책을 읽기도 힘들었고 너무 추워서 떠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저는 몹시 당황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였습니다. 조지는 계보를 탐구하는 일이 그저 즐겁기만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 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하고 추운 시간들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다른 가계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침례일과 출생일을 찾았고 남편은 결혼일을 조사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저는 기록된 가계 중 특별히 한 가족에게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적혀 있는 자녀들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찾아가는 동안 마치 제가 그 어머니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나이가

저의 아이들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와 새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큰 아이들이 새 아기에 대해 보이던 태도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짐을 떠난 지 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소란스러움과 침이 묻어 축축한 입술로 하는 키스와 힘에 넘친 포옹이 그리웠습니다.

그 때 조지가 저에게 잠시 동안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시대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찾는 이름들이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가족들의 죽음을 많이 기록했으나, 저는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분의 자녀 가운데 세살에 죽은 아이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제 눈에 동정의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다음 장을 넘겼을 때 팔 일 후에 그분의 여섯살 난 자녀가 죽은 기록을 보고는 눈물이 넘쳐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기록에 있는 아이들과 나이가 같은 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무릎에 누워 있는 그 작은 몸의 감촉, 집안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이야기 소리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쌍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책 장을 넘기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의 죽음이 있던 지 육 개월 후에 그 여인의 남편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도 감정이 북마쳐서 기록하던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마저도 제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매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매님의 고통이 목적 없이 겪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삽화 : 다그 페칼

남편과 자녀들을 다시 만나도록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자매님의 가족들은 영원히 자매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그때 흐르는 눈물은 화평과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성전과 가족이 있으며, 남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저는 성전에 가는

일이 이전보다는 더욱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찾아낸 그 자매님을 대신하여 의식을 받을 때에는 그 자매님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가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육체적인 상실과 눈앞에 닥친 죽음과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분에게 따뜻한 물이나 샴푸나 병 난 저의 자녀들에게 주는 약을 나누어 줄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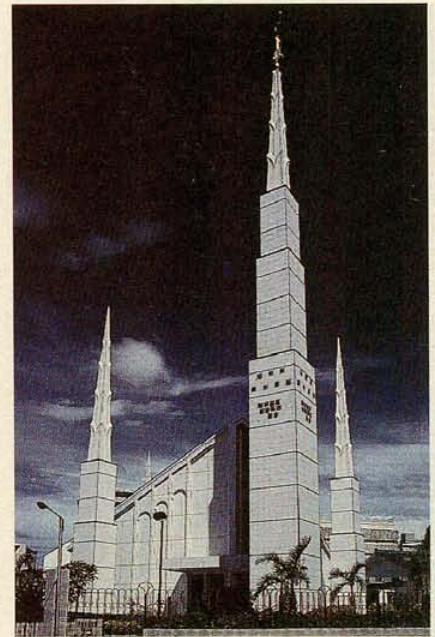
말일의 성전

.....
다 음 장에는
세계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성전들과
성도의 벗을 통해서
소개된 다른 모든
성전들은 이 말일에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집인 주님의 집입니다.

.....
뉴질랜드 성전





왼쪽 : 앨버타 성전 (캐나다)

위 :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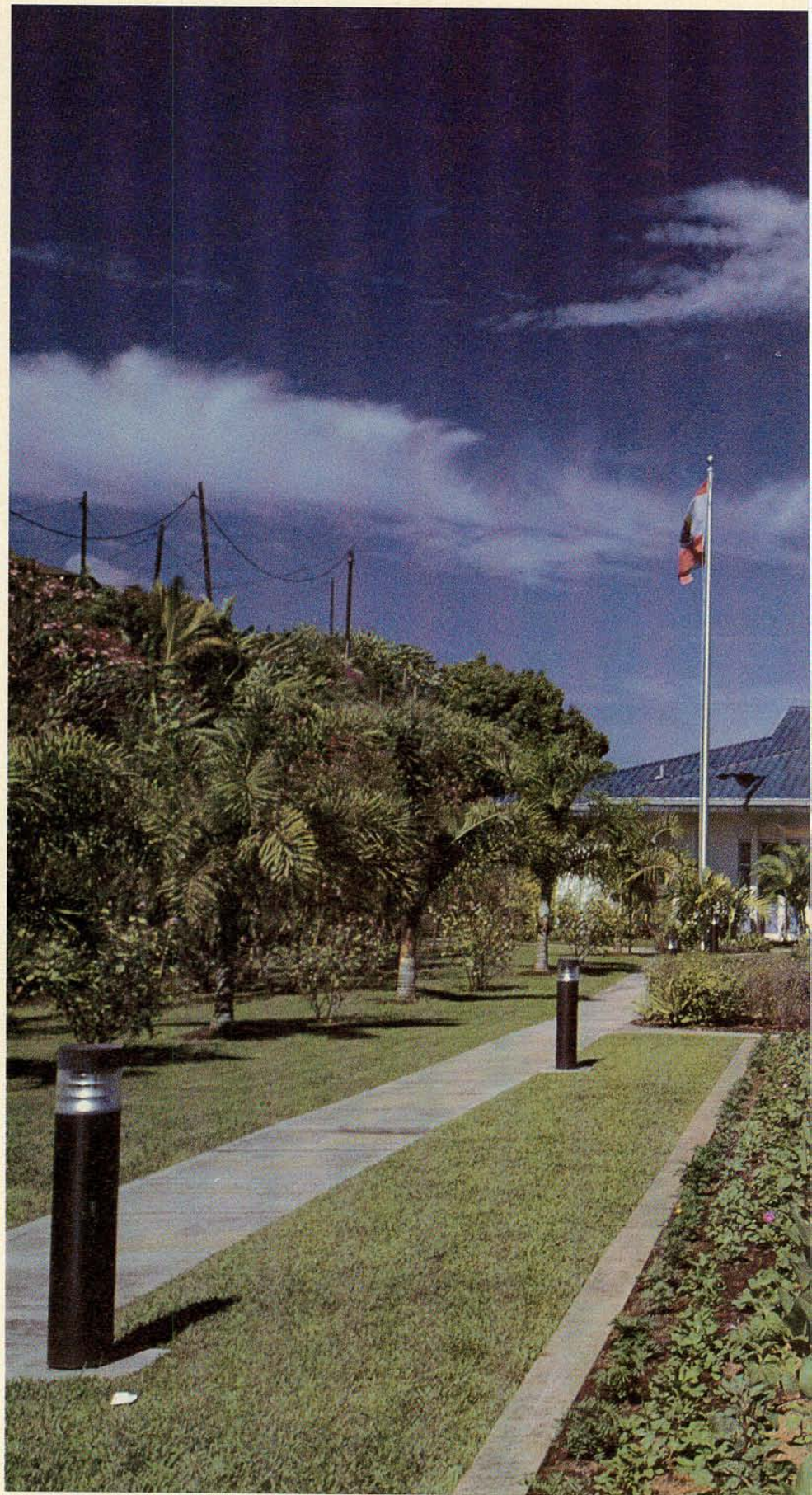
아래 : 대만 타이페이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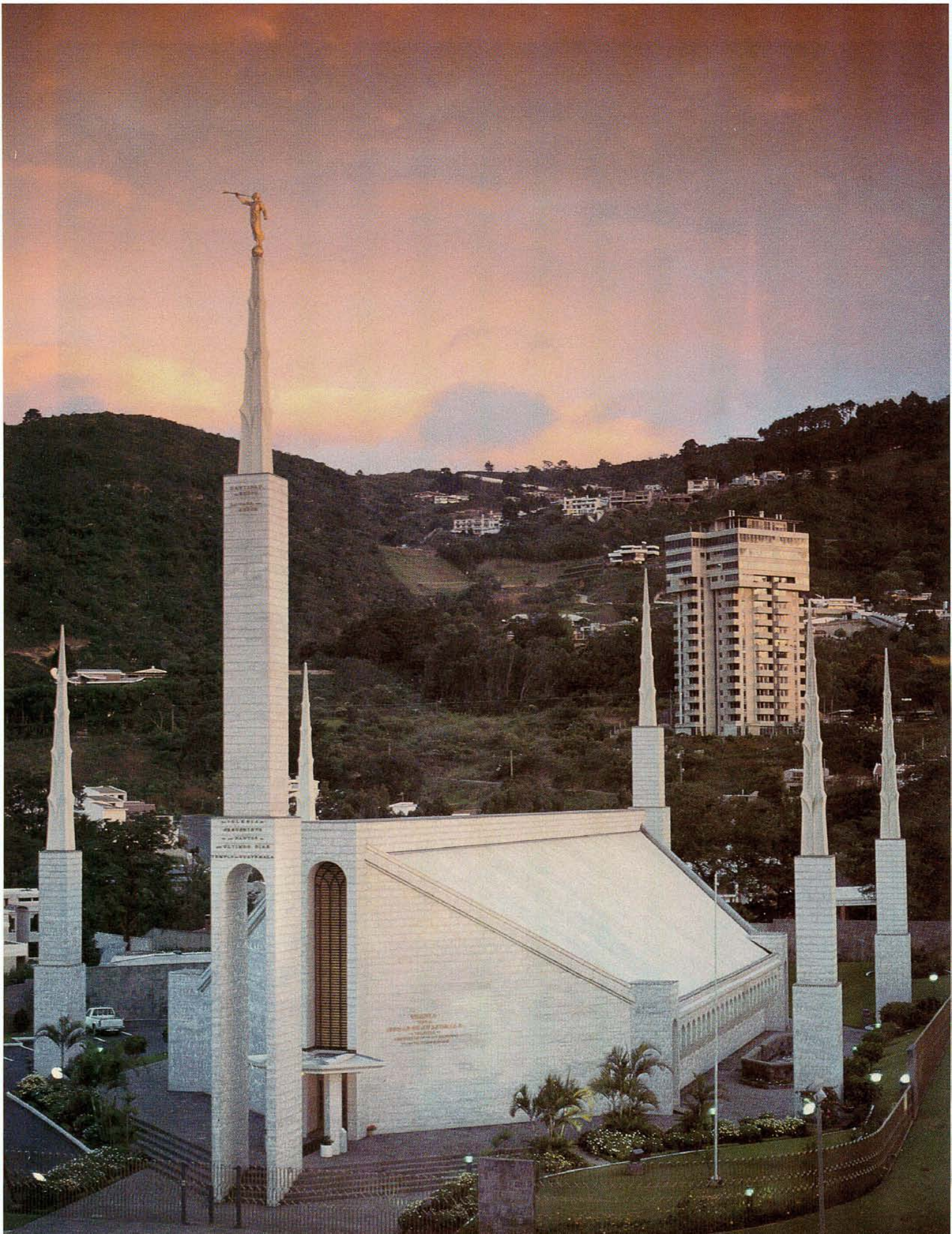
.....
위 :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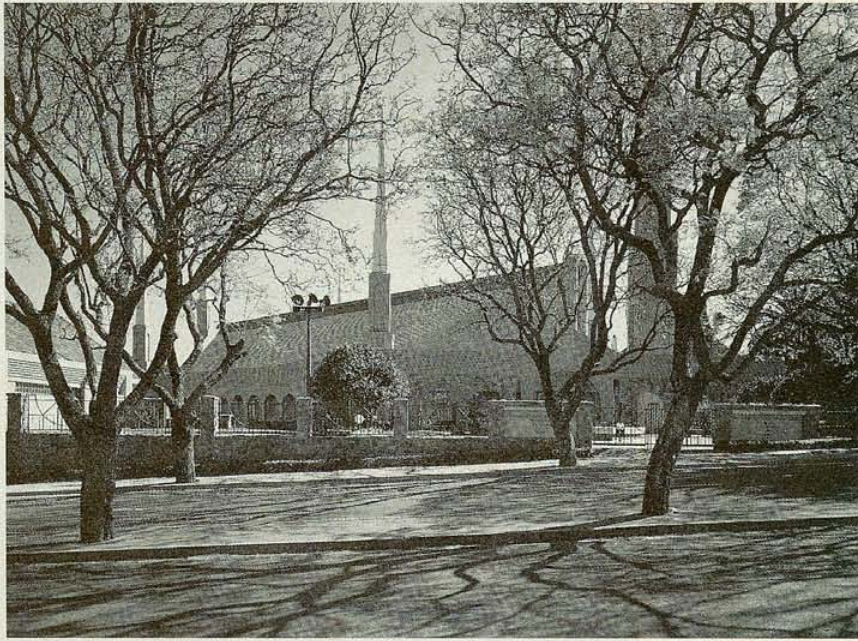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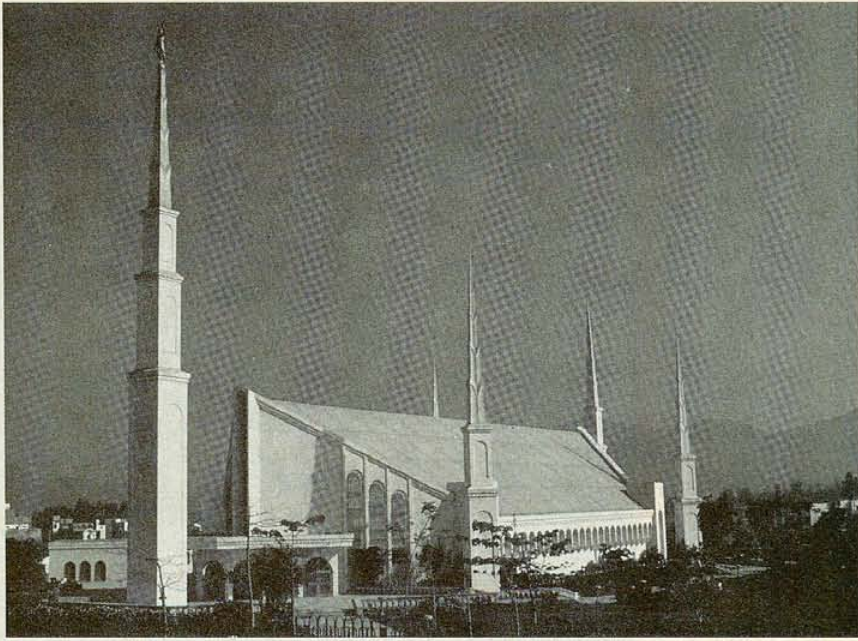
아래 : 워싱턴 성전(워싱턴 디.시.)

오른쪽 : 타히티 파피테 성전









.....

왼쪽 : 과테말라 시티 성전

위 : 페루 리마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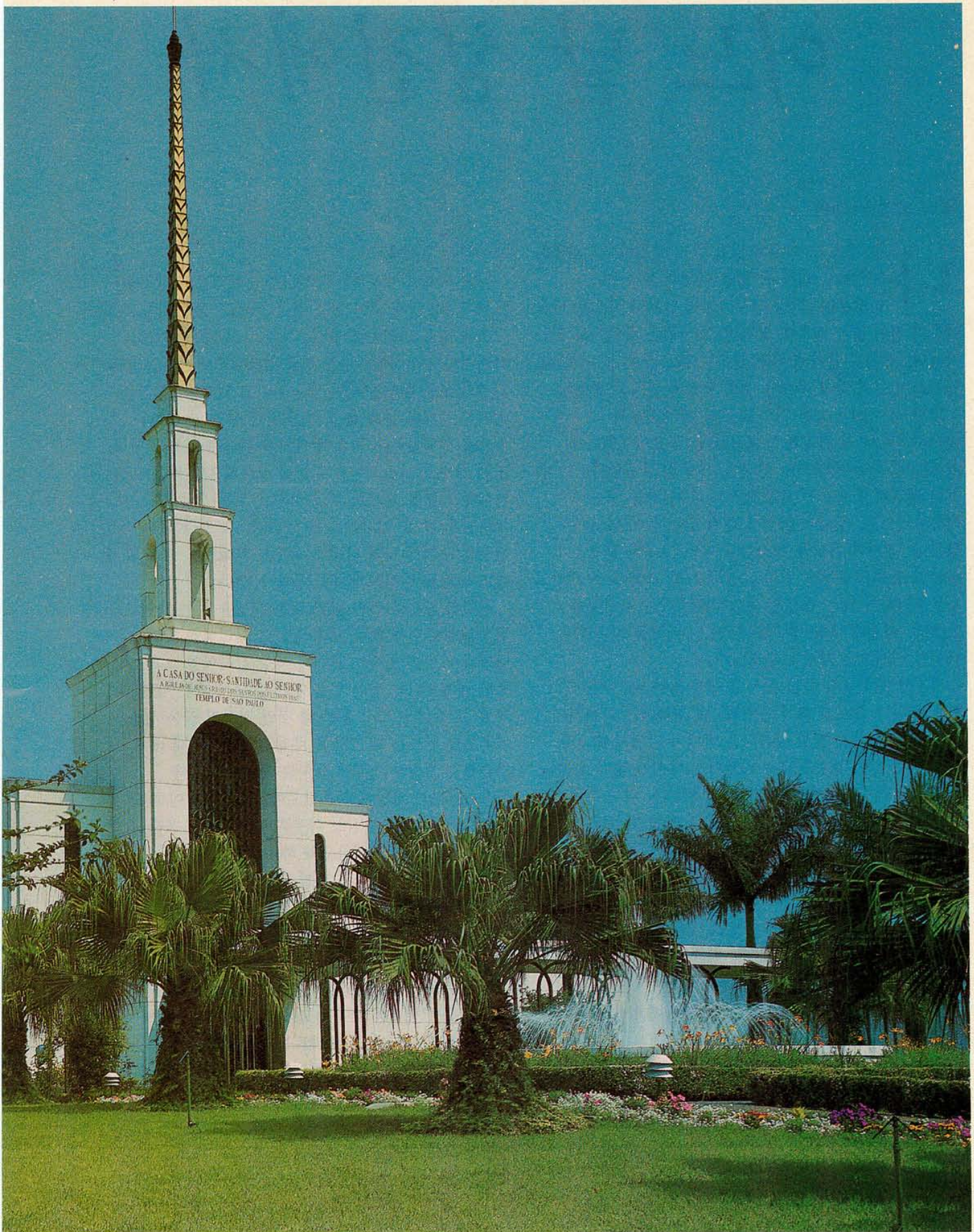
아래 : 남아프리카 요한네스버그 성전



.....
위 : 스위스 성전

아래 : 멕시코 시티 성전

오른쪽 : 상파울로 성전 (브라질)



어느 날 성전에서

메리 노엘 리그비

나는 계속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사람은 노인들로 가득 찬 방을 다정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만약 잠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며, 진실로 살아 있다면 일어날 필요가 있고, 육신을 먹이고 깨끗이 하고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나는 80이 넘는 나이였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척 귀찮게 느껴졌다. 목요일이었는데 아직도 매주 한번씩 가는 성전엘 가지 않고 있었다. 그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는 보통 때보다 더 실망을 주는 내용이었으며, 집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집안과 마당을 청소하고 나면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육신의 힘이 고갈되는 것 같았다. 무력하고 우유부단하며 늙은 육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몇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인 성전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성전에 도착해서 나는 잠시 조용히 앉아 나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 속으로 빠져 들었다. 내 왼쪽에는 어깨까지 오는 금발을 가진 젊고 아름다운 자매가 앉아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나보다도 나이가 많이 보이는 자매님이 역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나는 마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문득 나를 우울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탄은 보잘것 없고 나이든 여자까지도 해치려 하고 또한 이제까지 나를 해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전신을 파고들듯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낯선 이들에게서 평온한 분위기와 친근감을 느꼈다.

나는 사탄보다 그리스도의 힘이 더 강하며, 나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이제까지 느끼던 불안감과 늙어가는 데 따르는 문제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빠져 나가고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자세를 더욱 더 바르게 하고 앉았으며 행복을 느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그 방을 채우고 있는 고조된 영을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으며, 나는 그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 옳고 그른 것과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을 선택하는 능력을 쌓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살으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시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구속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나를 인도해 주며 주님이 나에게 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강화시켜 주는 힘을 느꼈다.

필멸의 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사는 동안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으며, 또한 이제부터는 집안 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주님은 잠시 동안 내 것인 지상의 작은 집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제 내 가슴에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열망이 타올랐으며, 집을 깨끗이 하고 관목을 다듬고 꽃을 심고 이웃과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 올 어떤 가족이라도 환영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나를 필요로 하고,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 증손녀들도 모두 나를 필요로 하고 또한 나의 안녕과 용기와 행복해지려는 정열과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성전 의식이 끝나고 있는 동안 나는 그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조용히 감사를 드렸으며, 밖에서는 잠시 멈추어 서서 꽃들과 싹트는 나무들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다. 집에 돌아가면 살구나무들이 꽃피고 있고 수선화들이 금으로 된 현수막처럼 나를 맞이할 것이다. 가슴 속에서는 집과 가족과 인생 그 자체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내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것이 영원을 통해서 행복한 추억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





폭풍을 잠잠케 함

마빈 케이 가드너

밖에서는 태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으나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1987년 12월, 한 작은 필리핀 가옥 안에서 파론다 가족이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항상 부드러운 소리로 이야기하는 루벤 파론다 형제였지만 지금은 마치 고향을 치듯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넬리와 자녀들은 퍼붓는 비와 울부짖는 바람 소리속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했다. 기도 내용은 주님에게 폭풍을 잠잠하게 해 달라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필리핀군도 카마린 서 타이곤 마을은 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파론다 가족은 많은 폭풍을 겪어 왔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폭풍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이유는 폭풍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 위해 마닐라로 가는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성전 여행이 위협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일년 전에도 성전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부모님들과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여덟 명의 자녀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여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저축했었다. (장남은 결혼하여 따로 살았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세상을

떠났다.) 파론다 형제와 그의 아들들은 버를 재배하고 옥수수, 감자, 참외 그리고 바나나를 길러 팔았으며, 파론다 자매와 세 딸들은 사리-사리 가게(동네의 조그만 만물상)에서 일했다. 그리고 큰 아들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하여 그 가족의 지프니(조그만 승객 버스)를 교대로 운전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나서 파론다 부부와 여덟 자녀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았다.

그런데 가족이 마닐라로 떠나기 직전에 그들의 지프니가 사고를 당해 승객 두명이 심하게 다치는 일이 생겼다. 그 지프니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친 승객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내기 위해

넬리와 루벤 파론다는 주님께 태풍을 멈추시어 가족을 성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파론다 가족 : 왼쪽부터 에드윈, 루넬, 존 마크, 매릴린, 루벤, 안드레스, 라너, 파론다 형제와 자매, 애니.



목회칼럼 : 성전 방문 기록

성전 기금을 모두 쓸 수 밖에 없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나 박해에 부딪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신앙을 갖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지프니 사고가 있던 지 열 한달 후에 그들은 마침내 또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을 모았다. 그런데 그때 태풍이 닥쳐왔던 것이다. 다행히 집과 가게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농작물이 망가졌으며 길이 물에 잠겨 여행이 불가능했다.

사망이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파론다 가족의 생각은 지금 당장 성전에 가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인봉을 받아야 했습니다.”라고 파론다 형제는 설명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삼일 안에 성전이 여러 주일 동안 문을 닫게 되어 있었다.

폭풍이 가장 거세게 불던 그날 밤에 파론다 가족은 드디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주님에게 폭풍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파론다 형제가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날밤 폭풍이 멈추었으며 우리는 여행하기에 좋은 날씨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 파론다 가족은 지프니 한대를 빌려서(그들의 지프니가 아직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열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밤 새 달려 그들은 성전이 문을 닫기 전 날에 도착했다. 즉시 그들은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나이가 된 모든 가족들은(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섯 자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런 후 부모가 서로 서로 인봉되었고 12년 전 생후 8개월 만에 죽은 앨런을 포함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지금은 비록 앨런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알아요. 앨런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에요.”라고 매릴린은 말했다.

넬리 파론다 자매는 “모든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 날 늦게 성전을 떠났으며, 그 전에 여행하면서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곤하거나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매릴린의 말이다.

다음 날, 그들은 성전에 다시 참석했으며, 후에 장남 노엘이 아내와 자녀와 함께 성전에서 인봉되었고 그 후에 가족들 모두 조부모와 증조부모를 위해 의식을 받았다.

파론다 형제는 고아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한 첫번째 필리핀인였으며, 지금은 고아 지방부의 첫번째 필리핀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지프니 사건과 태풍을 회고하며 “그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과 도전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

필리핀 마닐라 성전. 맞은편 쪽 위, 성전의 입구



에디 크리올로 필리핀 · 마닐라

청녀를 환영함 : 열려진 문

열 여덟 살인 리사는 교회에서 무리를 지어 담소하고 있는 자매들로부터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그들은 리사의 또래가 아니었습니다. 리사가 상호부조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에이, 다음 주에 가야지.” 그러나 그 때 영이 리사에게 나아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리사가 문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상호부조회 회장이 그녀를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서 반가워요. 우리는 자매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삽화 : 포리 앤더슨

청녀 프로그램에서 지도력을 쌓고 봉사를 해 온 이러한 젊은 성인들이 그들의 생활에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열성과 영성, 그리고 종교적인 헌신을 가져다 주는 상호부조회의 평생 지속되는 자매애로 향해 나아옵니다.

상호부조회로 들어오는 문을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물몬의 샘에 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모사이야서 18:21)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새로 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활력을 활용할 때 단합과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청녀들이 상호부조회로 가져오는 영과 재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가슴을 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환영함

1842년 상호부조회 첫번째

모임에서 할머니, 어머니, 독신 여성, 그리고 십대 후반에 있는 젊은 자매 등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과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19살 된 밋세바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60년 후에 밋세바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전통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며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의 말일성도 여성인 오클라호마주 브로큰 애로우의 루스 모간 자매는 상호부조회에서 그녀가 지낸 시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없는 젊은 여성에서 성장하여 젊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었고 그 후 중년의 현명하고 확신에 찬 자매가 되었습니다. 19살에 저는 사랑하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뜨게질을 배웠습니다. 그 할머니도 뜨게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길을 보여주시는 구세주에 대하여 배웠으며, 가르치고

포용하고 인도하고 따르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매로서 매우 확신에 찬 상호부조회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젊은 자매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가?

서로 서로 강화시킴

모든 와드와 지부에서 젊은 자매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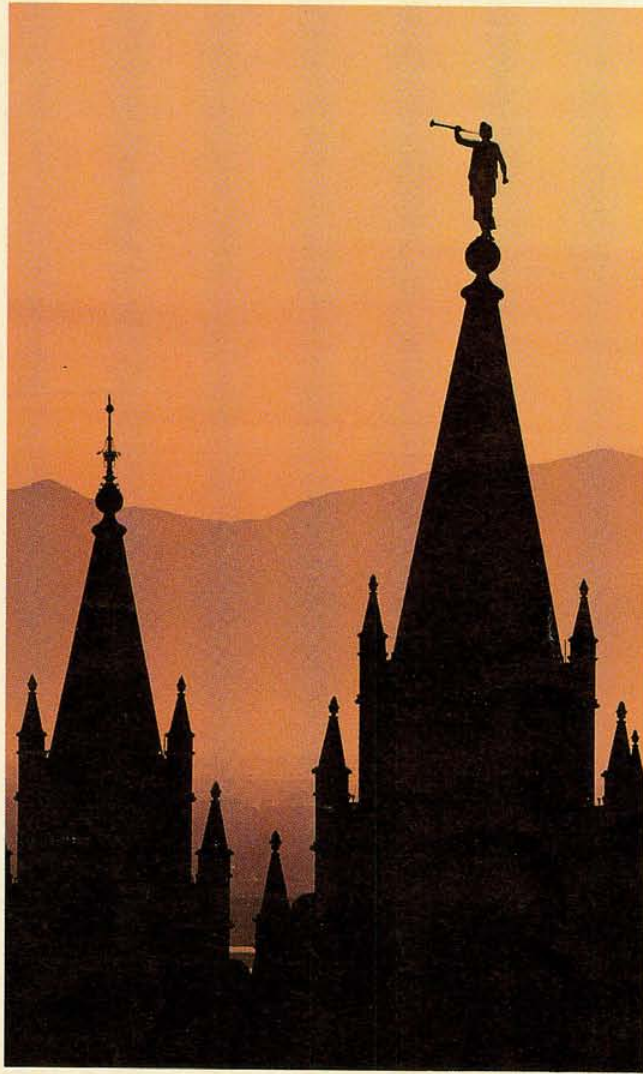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은 서로 지지하고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룯과 나오미가 서로 존중하고 봉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과 예수님이 태중에 있는 동안 그녀의 나이 많은 사촌 엘리사벳으로부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고 아마도 장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젊은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헌신은 모든 연령에 있는 자매들에게 본이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누가복음 1:46~47)

청녀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로의 재능을 향유하고 활동과 간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호부조회로 이러한 자매들이 오는 것을 모두가 환영하기를 권고합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서 젊은 자매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한국 서울 성전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독특한 가르침 중의 한 가지는 영원을 위한 성전 및 성전 의식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특별히 현대의 성전 및 그 목적에 관한 기사를 주로 실었다.